

## 국가가 내 땅이냐? 文 정권 부패·탐욕에 민심 폭발

文 지지율 '34.1%' 역대 최저  
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 39.1%  
이재명 21.7%, 이낙연 11.9%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인은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지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 자신의 사저 매입, 딸 문다혜 씨의 주택 매매, 처남의 토지 거래 의혹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연부설'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수행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6%p 내린 34.1%였다. 부정평가는 4.8%p 오른 62.2%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긍정평가는 가장 낮았고,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긍정·부정평가의 격차는 28.1%p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직전까지 문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지난 1월 1주차 조사에서 나온 35.5%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서 각각 9.3%p, 6.2%p 떨어졌고,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도 5.8%p

나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60대에서 5.5~6.2%p 떨어져 하락세를 주도했다. 학생층에서도 16.3%p가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한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론조사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윤 전 총장은 39.1%를 기록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KSOI가 발표한 지난 15일자 조사보다 1.9%p 상승한 수치다. 이 지사는 21.7%를 기록했고, 이 전 대표는 11.9%에 그쳤다. 두 사람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각각 2.5%p, 1.4%p씩 하락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5.9%, 2.7%, 2.7%를 얻었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각각 1.9%, 1.7%의 지지율에 머물렀다.

기사에서 인용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KSOI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혹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현 기자 kimgija@hotmail.co.kr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2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강남에서 유세를 펼쳤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코엑스에서 지지호소를 했다. 사진=시장경제DB.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중기부 장관 ‘불가’ 주장  
“개인별 손실 편차 커”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했지만 중기부는 난색을 표했다.

이날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은 “피해에 대한 지원(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적 성격도 일부 갖고 있다”는 강성천 중기부차관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 손실보상 이야기는 없었다”며 “강 차관은 1~3차 재난

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이 완성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적극적 해명이 없으면 추경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이 “강 차관이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금이라고 말했는데 손실보상은 국가행정명령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소급해 주는 것”이라며 강 차관의 인식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현재까지 정부 입장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은 수만가지 케이스가 각각 있기 때문에 산출 자체가 어렵다.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신도 모를 것”이라며 손실보상 논의를 하려면 각각의 케이스를 다 따져야

하며 수만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양금이 의원은 “중기부가 기본적인 재정추계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핑계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역시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포괄적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보상하고 어느 정도 재정을 유지하는지 등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행정성 있는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모두 공평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손정은 기자 jeson@newdailybiz.co.kr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Inside	
LH 부동산 투기	▶2~4면
[특집] 뷰티	▶12, 14면
제주동문시장	▶20면
PD수첩 기성용 악마 편집	▶22면

## 소상공인, 회장에 오세희 단독 입후보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구축·지원사업 등 공약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달 제4대 회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오세희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오 후보는 현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을 이달 18일까지 진행한 결과, 오세희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다음달 8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회장 임기는 3년이며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들의 투표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단독 입후보의 경우,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을 얻게 되면 당선된다.

오 후보는 ▲업종별 맞춤형 사업·소상공인 비대면 판매촉진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활성화 ▲소상공인 상권 DB 등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정책 제작소 설립 등을 통해 ‘소상공인 혁신·상생·통합의 생태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출마의 변에서 오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표 기자 yuyp@meconomynews.com

# 6월, 프랑스 칸에서 만나는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

일자: 2021년 6월 21일(월) ~ 25일(금)  
장소: 프랑스, 칸 (Cannes, France)  
문의: 칸 라이언즈코리아 webmaster@canneslions.co.kr

\* 칸 라이언즈 조직위원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 추이를 살펴 경우 따라 참가규모 축소 및 칸 라이언즈 일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